

베드로

(견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베드로)

-열여섯 번째 이야기-



103Page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성전의 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 보지 못한 앉은뱅이였어요.



104Page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자 앉은뱅이는 손을 벌려 구걸했어요.
“도와주세요.”



105Page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어요.
“우리를 바라보아라.”
앉은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어요.
그 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내게 금이나 은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게요.”
앉은뱅이는 손을 내밀면서 과연 무엇을 줄까 하고 기대를 했어요.



106Page

베드로가 앉은뱅이에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앉은뱅이의 오른손을 덱씩 잡아 일으켰어요



107Page

앉은뱅이는 자기도 모르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어요.
앉은뱅이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뒤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108Page

성전에 기도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모두 물려왔어요.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앉은뱅이 아닌가?”
“맞아, 그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사람들은 놀라서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어요.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뒤따라오면서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다리를 고쳐 주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 모였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앓은뱅이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109Page

이 때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매우 화가 났어요.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들은 병사들을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은 병사들에게 끌려왔어요.

나쁜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었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냐?”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앓은뱅이를 고쳐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용감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예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크게 혼날 줄 알아라!”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섭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요.”



110Page

베드로는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척 놀랐어요.

그들은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111Page

앓은뱅이가 나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게 되었어요.